

● 부활제 4주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뵈게 해 주십시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자이쿠마르’ 교수는 하버드 대학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인생 체험담을 들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전 나는 히말라야 산을 등반한 뒤 하산하는 길에 발을 헛디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울퉁불퉁한 경사면을 따라 약 2.4Km 정도의 거리를 미끄지며 온몸은 찢어졌고 엉덩이뼈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의 산간마을 한 여인의 도움으로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친 여인은 나를 업고 걷기를 3일간 계속해 병원이 있는 마을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지극히 관대한 사랑은 나를 완전히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행운 속에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소유하고 누린 크고 작은 것 모두가 행운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열정은 나를 어느 특별한 봉우리로 오르도록 이끌어 주었지만, 추락은 내가 보다 높은 곳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지, 헌신적인 스승이나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만남으로써 내게 얼마나 커다란 행운이 찾아 왔는지 깨닫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나온 자신의 생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이쿠마르 교수보다도 더 큰 은총의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은총의 체험을 체험으로 머물게 할 때에 그곳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총의 체험이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이어질 때, 그 체험의 내면 깊은 곳에 사랑의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을 만나 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우연 뒤에는 사건 하나하나에 하느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분 섭리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행운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은 결국 하느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 같은 은총을 체험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저 오르려고만 하였던 세상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지, 주님께선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요한 14,8) 하는 청을 드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와 함께 지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을 뵈게 해 달라고 청하는 필립보에게 아주 단호히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물고기가 물 속에 살면서도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해엄을 치면서도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은 제쳐 놓고 식량 배급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육신을 배불리 먹일 음식에만 마음을 쏟았지 영혼을 살찌울 말씀을 소홀히 하였던 것입니다. 그 같은 마음을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산란해’졌다

고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식량 배급에서 손을 떼고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의 안정과 주님의 평온 속에 그분의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 신도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커다란 권력자가, 힘이 될 수 있는 식량배급의 유혹에서 벗어나자 주님을 만나 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요한 6,27)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곁에 계신 주님의 현존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고요한 침묵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주님께서 내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의 불안은 사라지고 든든한 동반자이신 주님 때문에 인생이 기쁨과 환희로 가득찰 것입니다.

그 같은 기쁨을 체험한 이들이 자신의 영적 재물을 주님께 바치며, 신령한 하느님의 집을 짓는데 쓰일 산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추기경 시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기본 요소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삶과 함께 하며 그러한 삶조차도 살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기쁨입니다.”

고통의 인생 여정에서도 주님께서서는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동행은 고통을 이길 힘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배광하 신부 < 갯세마니 피정의 집 원장>
●공소일반공지 ●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울트레아 : 매월 첫주일

주님 부활 감사 기도

이날은 주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주님의 세상에
부끄러운 사람에게
실망하는 사람에
강도의 죄인
그어둠의 죄인
주홍악한 죄인
생명의 복을
하늘의 천사들
더러운 세상의
만백성이
더없이
죄악이
사랑이
죽음이
이보다
예수여
언제나
주님의
승리의
죽음을
예수여
성부와
위로
영원히
무

주님의 영광으로
의피로
죄인
세상에
사람에게
홍한죄인
공포자
십자가
죄인
복받은
천사들
세상의
저지른
사람이
놀랍고
주님은
두려움
새생명
더귀한
파스카
변함없
은총
의것
발아래
이거시고
크신영광
자신성
위로

참찬관
관사를
사람의
힘을
사하
아들
남고
매달려
지켜보
놀라워
때껏
저지른
죄물
씻어
주님
은총
찾아
숨을
되찾
어디
뿔
남게
다시
난
모아
주소
서
빛나
시오
니
받은
영
과
함께
영원히
무

날이
다
아
는
도
다
주
며
니
라
고
비
하
네
고
는
주
시
고
니
려
도
다
해
며
아
니
있
으
라
속
깊
이
우
리
주소
서
영
과
함께
영원히
무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 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성모회에서 일립니다.

5월부터 친교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자매님들은 성모회 총무 박 도미니카 자매께 연락 주세요 (집) 519-620-7215

◎ 다음 주 미사 후에 사목회의가 교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관리부에서 일립니다.

▶성 안토니 데니얼 성당의 열 신부님께서 성당 사용에 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미사 전에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아동들 단속과 미사 후 문단속, 소등, 청소건 (특히 담배꽂초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성당은 하느님의 집입니다. 다 같이 경건하고 깨끗이 사용합시다.

▶교육관 사용 안내 : 미사후의 모든 모임은 교육관을 사용하시고 필요한 부서및 단체는 관리부에 2주전에 예약하시고 교육관 열쇠는 사용 당일에 관리부에 오셔서 사용대장에 서명, 인수하시고 반납은 다음 주일 날 성당에서 관리부에 해주시면 됩니다.

***고정적으로 이용할 단체는 사전 예약바랍니다 ***

▶교육관 정리 정돈 - 사회봉사 시간이 필요한 중고등부 학생들은 신청하세요

▶교육관/사제관에 필요한 비품 기부를 받습니다
물품, 현금 또는 캐나다안 타이어 머니로도 가능합니다. 세금공제영수증을 발부하오니 금액을 명기 하세요

▶문의: 이명희 부장

(B)519 894 3533 / H) 896 9628/ C) 228 338 0679

◎ 라이프센타 축성식 안내

오는 4월 28일(월요일) 저녁 7시에 저희 성당에서 특별한 축복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해밀턴 교구장님을 비롯하여 주교님들과 많은 신부님들이 참석 하십니다. 특히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가대가 한국어로 성가도 부를 예정입니다. 성가대의 힘찬 화음을 위해 관심있는 교우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 연습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4월 구역모임

- ▶2구역: 4/26(토) 오후 6시, 교육관
- ▶4구역: 4/25(금) 오후 6시, 하상호 형제집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 주간 전례

- ▶4 월 22일(화) 저녁 8시, 부활제 5주간 화요일
- ▶4 월 24일(목) 낮12시, 부활제 5주간 목요일
- ▶4 월 24일(목) 저녁 8시, 부활제 5주간 목요일

◎평일미사시간 변경(5월부터 시행)

목요일 저녁 8시 미사⇒금요일 저녁8시 이동

◎예·찬·사(예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
본당 행사와 친교를 목적으로 한 성인 찬미 그룹
예·찬·사에서 음악으로 주님께 찬미드릴 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관악기/현악기/여성싱어/드럼
문의 : 행사부장(김한옥 에릭 형제님)

배려의 미덕

아주 옛날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길을 거닐던 그 노인은 한손엔 등불을 들고 한손엔 장본 것을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장님이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니시는 거요?" 노인은 밝은 미소를 띠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요."

이 노인처럼 배려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걸 배려라고 합니다. 배려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쉽게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스를 탈 때 어르신들이 승차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편안함을 위해서 눈을 감지 맙시다.

배려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더라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도와주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미 사 전례

해 설 이우원 차주 해설 박인선

화 답 송 주님, 저희가 주님께 바라는 그대로, 저희 위에 주님의 자애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도다.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34)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
봉 헌 (340) 봉헌
성 체 (165) 주의 잔치
퇴 장 (128) 형제여 기뻐하라 알렐루야

독 서

4 월 20일 박재영 박경미
4 월 27일 한택중 한재희
5 월 4일 노원균 노숙희

봉 헌

4 월 20일 김근효 김순희
4 월 27일 박재영 박경미
5 월 4일 한택중 한재희

복 사

4 월 20일 원영 현재
4 월 27일 경은 규환
5 월 4일 하람 한힘

2008년 4월 13일 현금 내역
주일현금: \$ 695.00

Total : \$ 695.00

2008-16 2008. 4. 20.

부활 제 5 주일

-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건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